

주일에배

SUNDAY WORSHIP

1부 : 신앙의 유산을 따라 드리는 전통 예배
 2부 :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디아코니아 예배
 3부 :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인도 1부 : 최성구 목사
 2부 : 전성민 목사
 3부 : 황수영 목사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젊은이예배 13: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말씀	요한복음 4:24	인도자
개회찬송		찬양대

	1부	2부	3부	
※찬송	9장	경배와 찬양 (은혜 아니편의 4곡)	9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성서교독	56.(시편128)		56.(시편128)	

기도	한정호 장로	류민의 장로	김영문 장로	말은이
찬송	368장		368장	다같이
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마태복음 6:9	인도자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small>진선미</small>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small>홍지영</small> 하나님의 나팔소리 <small>Mary Medonald</small>	임마누엘 찬양대 여호수아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하늘, 우리, 아버지	박도준 목사
※찬송	다시 복음 앞에	다같이
※축도		박도준 목사

※ 표는 일어서시는 표입니다

4부 젊은이예배

찬양	청년부 경배와 찬양
기도	이소운 집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6:9 김성현 청년
말씀	하늘, 우리, 아버지 박도준 목사

영혼을 깨우는 예배

CHUNCHEON DONGBU WORSHIP

찬양예배 오후 7시 인도 : 박인옥 전도사

목도	마태복음 28:19-20	다같이
찬송	309장	다같이
기도		박영동 집사
찬송	528장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예레미야 1:4-10	인도자
찬양		브니엘 찬양대
말씀	너를 구원하리라	황수영 목사
찬송	436장	다같이
축도		황수영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황수영 목사

목도	마태복음 28:19-20	다같이
찬송	542장	다같이
기도		권미경 권사
찬송	549장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창세기 32:22-32	인도자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창세기[32] -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전성민 목사
찬송	543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심야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에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대에배실

예배 · 모임 · 교인동정

CHUNCHEON DONGBU COMMUNITY

예배·봉사위원

- 10월 헌금위원
 - 1부 : 박영동 김정희(5-5) 김효순 오시혁 정지연
 - 2부 : 송태욱 김정희(1-가족3) 김정희(2-5) 김현숙 문옥자 박지나 심희성 이명순 최보진
 - 3부 : 윤수중 강철숙 고은영 김분남(2-16) 김순이 노성숙 박정숙 신영희 양인덕 이의숙
 - 중층 : 홍기중 박승훈 김기영 김은실 정명진 정소연 홍종성
 - 10월 예배위원
 - 1부 : 김남철 박현숙 손영숙
 - 2부 : 장병설 김택명 김진호
 - 3부 : 박성춘 강신애 김영덕 (4층) 이근호 (5층) 박우숙
- 저녁 : 오정화 김순자 정혜숙 박경혜 백육자

정기모임

- 축구선교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오후 8시 공지천 B구장
- 배드민턴선교회 :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7시 45분 남춘천중학교
- 탁구선교회 : 매주 화, 목, 금 오후 2시 호산나홀
- 테니스선교회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원대학교 학생 코트
- 경배와찬양(2부)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분당
- 경배와찬양(청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분당
- 청년1부리더훈련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5층 새가족부실
- 청년2부리더훈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층 당회원실
- 중보기도모임 : 매주 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중보기도실 (예배)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안나의 방 (나라와 민족)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층 중보기도실 (선교사역)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2층 중보기도실 (환우)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중보기도실 (세계평화)

교인동정

성명	교구/구역(구역장)	내용
권태분	1-2(박복임)	입원 - 강원도 재활병원
신재경	3-2(전경혜)	입원 - 연호요양병원 603호
박정희	3-10(백경미)	입원 - 토마스요양병원 210호 (허하순 집사)
황보연	1-1(황우희)	이사 - 춘천시 동면 도일길 6-1, 203호
이상필	4-15(목회구역)	개인전 - 9일(수)~15(화) 인사동 갤러리 이즈

어부의 눈

FISHERMAN STORY

춘천 CBS 라디오 강단 (93.7MHz)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5분~10시

‘어부의 눈’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요약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기에 ‘어부의 눈’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디아코니아

김한호 지음 | 디아코니아연구소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목회 사역에 접목해온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신간 ‘한국교회와 디아코니아’를 최근 출간했다. 김 목사는 책에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찾아가며, 역사의 모든 과정마다 디아코니아 사역들이 있었음을 통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한호 목사는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사회복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죽순이 나고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하는 대나무처럼 사회복지지는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양 학문이나 선교사를 쉽게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그 자리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전기는 선교사였다. 선교 초기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면서 사회복지지를 전문화, 체계화시켜 왔다. 교회는 근래 해외교단과 사회봉사 교류를 활성화시켜 왔고, 국가복지 시스템의 뚜렷한 도약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길을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역사교과서처럼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열 박사는 “한국교회가 좀 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뜨거운 열정과 개혁의 마음이 이 역사적 정리의 결과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호평했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쇠퇴해가는 현실의 돌파구를 디아코니아 역사를 살펴보는 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디아코니아 목회뿐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는 김 목사는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하고 관련 가능한 많은 역사자료와 시청각자료를 활용했다. 사회복지 사역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기본을 익힌다는 마음으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